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학의 가능성: 교토라는 도시와 『겐지 모노가타리』

이미숙(李美淑)

‘일본정부 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이 발표한 보도자료(2019년 1월 16일자)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조사를 시작한 1964년 이래 최고치인 3119만 1900명이었다. ‘국토교통성 관광청’(国土交通省観光廳) 자료인 <2018년 방일외국인 소비동향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상위 5개 지역은 도쿄도(東京都), 오사카부(大阪府), 지바현(千葉県), 교토부(京都府), 후쿠오카현(福岡県) 순이었다. 그리고 ‘교토시 산업관광국’(京都市産業観光局) 자료인 <2018년 교토 관광종합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교토시를 방문한 내외국인을 합한 관광객 수는 5275만 명이며 그 중 외국인 숙박객 수는 450만 3000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끊임없이 방사능 문제가 제기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일본, 그 중에서도 교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는 것은 왜 일까. 교토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일본의 ‘문’(文) 문화가 꽃피었던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의 도읍지인 헤이안 경의 풍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문화자산이 허구의 문학텍스트 속에 형상화되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면면히 향유되고 음미되어 생생함을 잃지 않아온 궤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학텍스트가 바로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라는 여성작가가 집필한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1008년경)이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교토라는 도시, 그리고 교토라는 도시를 주된 서사공간으로 삼아 창작된 『겐지 모노가타리』가 문화자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학, 나아가 문학텍스트가 문화자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더하여, 그러한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보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일본 내 지역문학관의 양상과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과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지역문학관은 일본 전국 각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역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미숙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본어과(현 일어일문학과)에서 『가게로 일기』(蜻蛉日記)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일본 도호쿠 대학(東北大學) 문학연구과에서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대한 연구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0-11세기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의 고전 여성문학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전근대 일본문학 및 일본문화를 폭넓게 연구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대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로 10년간 재직하였다. 현재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겐지 모노가타리 3·4』의 번역·주해에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源氏物語研究—女物語の方法と主題』(新典社, 2009, 日本), 『나는 뭐란 말인가: <가게로 일기>의 세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가게로 일기』(한길사, 2011), 『겐지 모노가타리 1·2』(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2017)가 있다. 2011년 제5회 해석학회상(일본)을 수상하였다.

Date & Time: November 26 (Tues) 2019, 12:00-13:00

Place: Room 406, SNUAC (Bldg#101)